건설기능경기대회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5월 19일 충북 음성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되었는데, 전국 건설현장에서 선발된 건설기능인 282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제14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5월 19일 충북 음성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에서 개최됐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가 주최한 건설기능경기대회는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건설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건설 기능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건설현장에서 선발된 건설기능인 282명이 참가해 건축배관, 전기용접 등 13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국과 중국 등에서 온 외국인 연수생 8명이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으며 여성 참가자도 지난해 9명에서 13명으로 크게 늘어 건설기능분야에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만60세 이상의 고령자[도장종목 이태희(만64세), 거푸집종목 김상원(만64세)] 2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고 측량종목의 견영수(만22세)씨와 실내건축종목의 최하나(만23세)씨가 남·여 최연소 참가자로 기록됐다.

권홍사 회장은 대회사에서 "건설기능인력을 꾸준히 양성하고 기술수준을 향상시키는 일은 건설인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건설기능인들의 땀과 열정이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의 건설강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됐다"며 "기능인들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배전의 노력과 분발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능경기대회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건축배관 및 전기용접에 참여한 설비건설업계 선수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독려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서종대 건설선진화본부장이 대신한 치사에서 도로 댐 공항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 구축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21세기 국가 선진화와 건설산업의 발전은 기능인력의 손에 달렸다"며 기술능력을 쌓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회식에서 권홍사 건단련 회장은 우수한 청년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직업전문학교에 건설기능인력 양성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직종별로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등 모두 78명의 입상자를 선발, 상금 및 상패, 해당 직종의 기능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또 각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건설교통부장관 상장과 함께 국내외 산업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건단련은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 다수의 입상자를 배출한 기업과 대회 유공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추천할 예정이다.

건설기능경기대회는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대한건설협회가 1992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 오다 98년 6회 대회부터 건단련 주관으로 바뀌었다.

건단련은 이 대회가 기능인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우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해왔고 명실상부한 건설기능인의 축제로 자리잡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 발전시켜 보다 많은 기능인들이 참여하는 민간 최고의 대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